

2019 KCA Media Issue & Trend

01 .1

## 트렌드리포트

### Disney의 Disney+를 향한 여정

1. 들어가며
2. 스트리밍 기술력 확보
3. 콘텐츠 스펙트럼 확장
4. Disney+ 출시
5. 마치며

# Disney의 Disney+를 향한 여정

## 요약문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출범한 Disney는 놀이공원, 캐릭터 상품부터 방송, 영화까지, 콘텐츠가 있는 모든 곳에 진출해 있다. 그런 Disney가 이제 온라인으로 또 한 번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스트리밍 기술 업체인 BAMTECH을 인수해 스트리밍 기술력을 확보하고, Hulu를 인수해 아동·청소년 콘텐츠 중심의 자사 스펙트럼을 보다 확보해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위한 초석을 쌓았다. Disney+ 출시를 앞둔 Disney는 충분한 준비를 마친 듯 보인다.

##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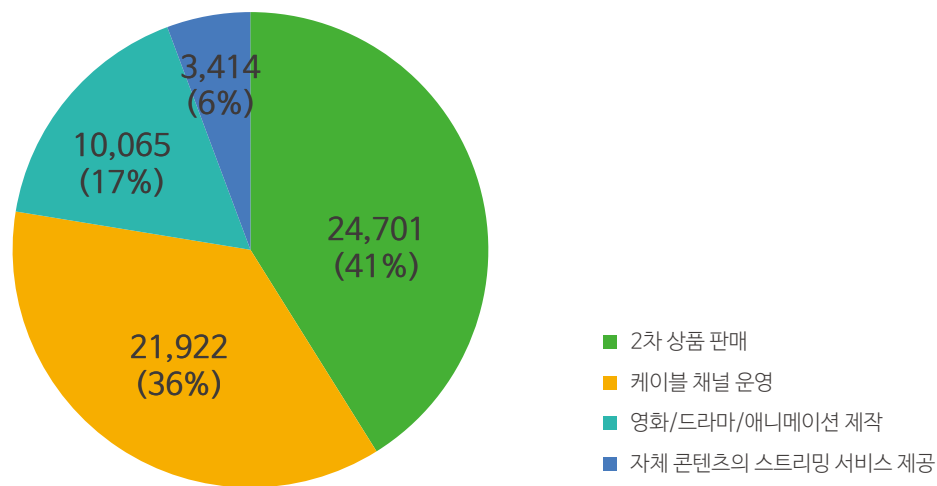
1923년에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로 첫발을 내디딘 Disney는 ‘Disney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Disney의 사업 부문은 크게 2차 상품 판매, 케이블 채널 운영,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제작, 스트리밍 서비스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도 2차 상품 판매는 2018년 기준 Disney가 가장 큰 매출을 내는 사업이다. Disney는 자사가 제작한 방송·영화 콘텐츠에 출연한 캐릭터를 기반으로 장난감, 게임, 테마파크 등 2차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2차 상품 판매를 통해 2018년에만 약 24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2차 상품 판매 다음으로 Disney의 매출을 견인하는 사업 분야는 케이블 채널이다. Disney Channel, ESPN, National Geographic 등 여러 케이블 채널을 운영하며 2018년에 약 2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그 외에도 Disney는 Walt Disney Studios와 Fox Searchlight Pictures 등 자사 제작 스튜디오에서 영화와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을 제작하여 100억 달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3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림 1** 2018년 Disney 사업부문별 매출

(단위: 백만 달러)



출처: Bloomberg

Disney가 본래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출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상품 판매와 영화·드라마 제작은 Disney가 사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Disney가 제작을 벗어나 유통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83년 4월에 자체 방송 채널인 Disney Channel을 처음 선보인 이후, Disney는 크고 작은 미디어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케이블 채널 사업을 확장해왔다. Disney가 사업을 확장한 것은 유통 분야뿐만이 아니다. 2006년에는 Pixar Animation Studios, 2009년에는 Marvel Studios, 2012년에는 Lucas Film을 인수했으며,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21st Century Fox와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디어 제작 및 유통 사업에서의 확장을 거듭하였다.

Disney의 케이블 채널 사업은 2018년 매출의 2위를 차지했다(그림 1).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드 커팅의 심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Disney의 케이블 채널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케이블 채널의 매출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매출 대비 케이블

채널 매출 비중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 2014년에 Disney 케이블 채널 매출은 전체 매출 중 43.3%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9.2%p 하락한 34.1%까지 감소했다. Disney가 전개하는 케이블 채널 사업의 영향력도 지속해서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이다.

표 1 2014~2018년 Disney 케이블 채널 운영 매출 변화

년도	매출(백만 달러)	전체 매출 대비 비중
2014	21,152	43.3%
2015	23,264	44.3%
2016	21,326	37.9%
2017	21,299	38.2%
2018	21,922	34.1%

출처: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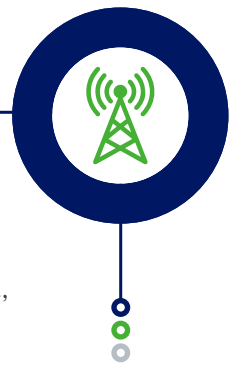
이에 Disney는 최근 몇 년간 스트리밍 사업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미국 프로야구 리그(MLB)가 설립한 스트리밍 기술 업체인 BAMTECH를 인수하여 Disney Streaming Services로 재출범시켰으며, 21<sup>st</sup> Century Fox를 인수하여 Hulu의 지분을 일부 획득했다. 특히, 2019년 11월에는 스트리밍 서비스인 Disney+의 출시를 예고해 미디어 업계의 촉각을 한곳에 모으고 있다.

## 2. 스트리밍 기술력 확보

Disney는 2016년 8월에 미국의 야구, 골프, 하키 등 스포츠 경기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로 제공, 판매하던 스트리밍 기술 업체인 BAMTECH<sup>1</sup>의 지분 33%를 10억 달러에 구매했다. Disney는 BAMTECH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스트리밍이 가능한 콘텐츠로 변환하는 기술을

1) MLB Advanced Media의 스트리밍 부문이기도 하다.





확보했다. BAMTECH은 Disney가 소유한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과 파트너십을 맺고, 2018년 4월에 ESPN의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인 ESPN+ 서비스를 시작했다.

Disney는 BAMTECH의 지분 33%를 획득한 지 1년만인 2017년 8월에 지분 보유율을 75%까지 높였다. 현지 언론에서는 추가 지분 확보에 대해서 Disney가 향후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축할 때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4월에는 BAMTECH가 Disney Streaming Services라는 명칭으로 재탄생했다. Disney CEO인 Bob Iger의 발표에 따르면, Disney가 주력하는 3대 스트리밍 서비스(ESPN+, Hulu, Disney+)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Disney Streaming Service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019년 1월, Disney 발표에 의하면 2018년 9월 30일에 마감된 2018년 회계연도 기록에서 BAMTECH 관련 손실은 4억 6,9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외에도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Disney가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와 기술 개발에 투자한 비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수의 스트리밍 플랫폼이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당분간 투자 비용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콘텐츠 스펙트럼 확장

2019년 3월, Disney는 21<sup>st</sup> Century Fox의 보유자산 중 일부를 713억 달러에 최종 매입했다. 2017년 12월에 Disney의 매입 계획이 보도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21<sup>st</sup> Century Fox는 Fox Searchlight Pictures, National Geographic Channel, FX network, Marvel Studios 등 일부 영화 제작사와 케이블 채널을 Disney에 넘겼다. 또한, Disney는 일부 채널을 인수하면서 21<sup>st</sup> Century Fox 산하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Hulu의 지분을 추가 확보했다. 본래 소유하고 있던 30%의 지분을 60%까지 높인 것이다. Hulu의 나머지 지분 40% 중 30%는 미디어 기업인 Comcast가, 10%는 AT&T가 확보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Disney가

모두 매입하여<sup>2</sup> 10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Hulu는 본래 Disney, 21<sup>st</sup> Century Fox, Comcast 산하의 NBC Universal, WarnerMedia 등 여러 미디어 기업이 합작 출범한 스트리밍 플랫폼이었지만 이제는 Disney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선보이게 되었다.

Disney가 Hulu의 지분을 100% 확보한 것 역시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해석된다. 미국 매체인 Vox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에 Disney는 Netflix에 자사 콘텐츠를 공급해 매년 약 3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점차 Netflix의 영향력이 커지고, 어느새 유료 방송을 대체할 대체재로 부상하자 Disney는 동업이 아닌, 경쟁의 노선을 선택한다. Netflix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는 Hulu였다. 아동·청소년 콘텐츠에 특화된 기업이라는 인식을 얻고 있는 Disney가 더욱 다양한 연령대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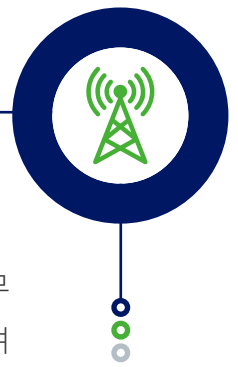
시장조사기관인 eMarketer의 2019년도 7월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Hulu 구독자 수는 2019년에 7,5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각각 1억 5,800만 명과 9,650만 명의 미국 구독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는 Netflix와 Amazon Prime Video에 이어 시장 3위(미국 내 OTT 서비스 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Hulu가 2017년 4월에 첫선을 보인 오리지널 콘텐츠 〈The Handmaid's Tale〉은 Golden Globe Awards와 Primetime Emmy Awards를 각각 두 차례씩 수상하며 작품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Catch 22〉, 〈The Act〉, 〈Pen 15〉, 〈Shrill〉 등 수상 후보로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림 2 〈Hulu〉 오리지널 콘텐츠인 〈The Handmaid's Tale〉



출처: IMDb

2) Disney는 AT&T 지분을 2019년 4월에, Comcast 지분을 2019년 5월에 확보했다. 당시 Disney와 Comcast는 Hulu 지분 관련하여 풋·콜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풋·콜 옵션은 2024년 1월부터 행사할 수 있지만, 거래 지분에 대한 경영권은 Disney가 행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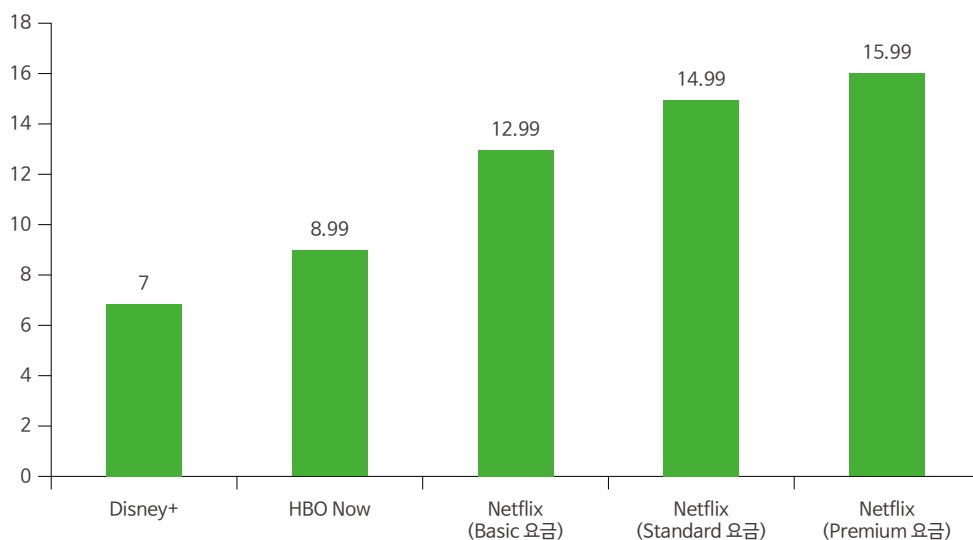


이미 Hulu의 콘텐츠 책임 팀(scripted originals team)과 Disney TV간에 긴밀한 업무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Hulu CEO인 Randy Freer가 2019년 6월에 CNBC에 출연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Hulu는 Disney와 함께 Marvel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Ghost Rider>와 <Helstrom>,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Little Fires Everywhere> 등 오리지널 콘텐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4. Disney+ 출시

2019년 11월에 출범 예정인 Disney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인 Disney+는 발표 직후부터 미디어 업계의 화두로 올라섰다. Disney+ 출시와 함께 Netflix가 제공하는 Disney 관련 콘텐츠가 대거 삭제될 예정임이 알려지자,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도 분분하다. 아동·청소년용 콘텐츠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Disney 콘텐츠의 특성과 경쟁 업체 대비 저렴한 이용요금 등으로 젊은 연령층의 흥미를 끌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 스트리밍 플랫폼 별 월 이용요금



(2019년 9월 기준) 단위: 달러, 출처: CNET

Disney+는 서비스 출시일을 기점으로 2년 내의 콘텐츠 제공 목록을 예고했다. Disney 측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트콤, 다큐멘터리, 기존 디즈니 영화의 스핀오프 작품 등을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하여 2년 이내에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서비스 개시일인 2019년 11월 12일<sup>3)</sup>에 〈Captain Marvel〉, 〈Iron Man〉, 〈Toy Story〉, 〈Star Wars〉 등 기존 영화 300여 편을 선보일 예정이며, 출시 1년 이내에 500편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출시 1년 이내에는 〈The Falcon and The Winter Soldier〉, 〈Lamp Life〉, 〈Diary of a Female President〉, 출시 2년 내에는 〈WandaVision〉, 〈Loki〉, 〈Hawkeye〉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추가로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Disney+에서 공개될 예정인 오리지널 콘텐츠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2 공개(예정)인 Disney+의 오리지널 콘텐츠

공개일	오리지널 콘텐츠명
서비스 출시일	〈The Mandalorian〉, 〈Forky Asks a Question〉, 〈SparkShorts〉, 〈Marvel's Hero Project〉, 〈High School Musical: The Musical: The Series〉, 〈Encore!〉, 〈The Imagineering Story〉, 〈The World According to Jeff Goldblum〉
출시 1년 내 공개 예정	〈The Falcon and The Winter Soldier〉, 〈Marvel's 616〉, 〈Lamp Life〉, 〈Monsters at Work〉, 〈Star Wars: The Clone Wars〉, 〈Into the Unknown: Making Frozen 2〉, 〈Be Our Chef〉, 〈Cinema Relics: Iconic Art of the Movies (가제)〉, 〈Diary of a Female President〉, 〈Magic of Animal Kingdom〉, 〈(Re)Connect〉, 〈Rogue Trip〉, 〈Shop Class (가제)〉
출시 2년 내 공개 예정	〈WandaVision〉, 〈Loki〉, 〈What If...?〉, 〈Hawkeye〉, 〈Untitled Cassian Andor Series〉, 〈Earthkeepers (가제)〉, 〈Ink & Paint〉

출처: Google

그림 4 Disney+에서 선보일 〈The Mandalorian(좌)〉, 〈The World According to Jeff Goldblum(우)〉



출처: IMDb

3)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출시되며, 1주 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서비스된다. 이후 나머지 지역에서 차례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 5. 마치며

다양한 미디어, IT 기업이 스트리밍 사업에 진출해 있으며,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 다수이다. 미디어 기업인 AT&T는 HBO 등 산하 케이블 채널 방송의 콘텐츠를 다수 선보이는 스트리밍 플랫폼 HBO Max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으며, 2019년 11월에 출시 예정인 Apple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Apple TV에서는 Reese Witherspoon, Octavia Spencer 등 유명 배우를 앞세워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Disney+가 풍부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Disney+ 출시는 단기간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 2016년부터 Disney는 스트리밍 기술 업체인 BAMTECH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21<sup>st</sup> Century Fox의 일부 채널 매입을 통해 Hulu 지분을 확보하는 등 몇 년에 걸쳐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를 위한 초석을 쌓아왔다. Disney+가 Disney 매출의 주요 견인차가 될지 Netflix의 아성을 넘지 못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Disney의 콘텐츠 경쟁력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 REFERENCES

1. Bloomberg. (2019.08.19.) Apple Targets Apple TV+ Launch in November, Weighs \$9.99 Price After Free Tria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8-19/apple-is-targeting-launch-of-apple-video-service-by-november>
2. CNET (2019.09.12.) Disney Plus: Launch dates, prices, movies and shows to expect.  
<https://www.cnet.com/news/disney-plus-streaming-service-launch-release-dates-prices-shows-movies-to-expect-free-test-netherlands/>
3. IMDb 홈페이지.  
<https://www.imdb.com/title/tt10196390/mediaviewer/rm3928461569>  
<https://www.imdb.com/title/tt8111088/mediaviewer/rm2161206784>  
[https://www.imdb.com/title/tt5834204/?ref\\_=nv\\_sr\\_1?ref\\_=nv\\_sr\\_1](https://www.imdb.com/title/tt5834204/?ref_=nv_sr_1?ref_=nv_sr_1)
4. Forbes (2019.08.21.) Netflix's Dominance In U.S. Wanes As Hulu, Amazon Gain Subscribers.  
<https://www.forbes.com/sites/danafeldman/2019/08/21/netflix-is-expected-to-lose-us-share-as-rivals-gain/#630fc1ad66d6>
5. Vox (2019.04.12.) Disney used to make hundreds of millions from Netflix. Now it will spend billions to fight it.  
<https://www.vox.com/2019/4/12/18307539/disney-streaming-launch-cost-billions-netflix-strategy-change>